



남자 캐스터는 가을 대신 시즌을 탄다.
야구 시즌, 배구 시즌, 농구 시즌...
고로, 가을은 야구 중계의 계절이다.



KBS N

magazine VOL.06 SEPTEMBER. 2016



야구로
가을을 살다





CONTENTS

SEPTEMBER. 2016 VOL.06



N special

- 04 KBS N과 인천대교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캠페인
- 08 201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망
- 10 야구 캐스터 3인방의 유쾌한 수다
- 12 N report
KBS N Sports, 생생한 리우의 현장을 담다
- 14 Interview
<엄마는 고슴도치> 메인 MC 이영자
- 16 N match
KBS N Sports 이색 제구력 테스트

- 17 On air
KBS N 추석 특집
- 18 Review
세대 소통 차트쇼 <차트를 달리는 소녀>
- 19 N test
<차탈소>와 함께하는 아재력 테스트
- 20 N news
KBS N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 22 Notice
히트다 치킨! 독자 소감 이벤트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09.05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KBS **drama** 방송

웃음이 희망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유에스더 양

인천대교가 지나는 영종도 앞바다에서 유에스더 양이 바이올린을 켵니다. 올해 나이 열세 살, 소녀에게는 저 하늘만큼이나 파란 꿈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들은 음악은 그대로 연주할 수 있어요. 따로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돼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소녀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인터넷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암 투병 중인 엄마, 아내의 병원비와 다섯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아빠는 딸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진 열세 살 소녀가 꿈을 펼치기엔 현실은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오늘도 웃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KBS N은 에스더의 해맑은 웃음이 희망의 선율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꿈을 응원하려 합니다.





“에스더처럼 재능 있는 학생들이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나무의 그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더 양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KBS N 이준용 대표

소녀와 바이올린

에스더는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을 두세 번만 들으면 따라 하는, 음악에서 색
같이 보인다고 말하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였다. 입문한 지 1년 만에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을 7권까지 끝낼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레슨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
져 바이올린 연주 동영상을 찾아보고 따라했다. 그렇게 하루 네다섯 시간을 연습에 매달렸다.
대학에서 국악성악을 전공한 엄마 미형 씨는 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딸의 꿈을 위해 빌딩
청소, 가사 도우미, 요양보호사 일을 마다하지 않고 뒷바라지에 매달렸다. 하지만 작년 6월에 안타
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에스더가 재능기부 공연을 하고 받은 건강검진권으로 검사를 받은 미형 씨
가 유방암 3기 선고를 받은 것.
미형 씨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에스더는 바이올린이 더 간절해졌다. 연주를 듣고 행복해하는 엄마
를 위해 더 열심히 즐겁게 연주한다. 미형 씨는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에스더의 공연을 따라다니
며 딸을 응원하고 있다.

에스더 가족이 KBS N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아버지 유광모, 어머니 김미형, 유에스더 양
이다. 에스더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에스더 양이 KBS N 사옥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초대와 만남

지난 8월 19일 금요일, 유에스더 양과 유광모, 김미형 부부가 KBS N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인간극장>의 ‘소녀와 바이올린’ 편(6월 27일~7월 1일 방송)을 보
고 큰 감동을 받은 KBS N 이준용 대표의 초대로 이뤄졌다.
이준용 대표는 <인간극장>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에스더를 보고 느낀 게
참 많습니다. KBS N의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웃음이 희망입니다’죠. 어려운 환경을 타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요. 에스더 양이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저는 정말 기대가 큼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웃음과 희망의 의미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웃음과 희망으로 밝은 세상, 함께 살아가는 따
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KBS N은 인천대교(주)와 함께 사회공헌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첫 회
에 유에스더 양의 이야기를 담았다.

희망의 걸음

“이틀 전에 남편과 함께 캠페인 촬영장을 따라다녔어요. 송도에 있는 센트럴
파크도 가고, 인천대교기념관 앞에서도 촬영을 했죠. 날이 정말 더웠어요. 피
약별 아래에서 스태프 분들이 온종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에스더를 위해 이렇
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나 남편에게는 정
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엄마 미형 씨가 말한다. 바로 앞에서 에스더 양이 씩스러운 듯 웃고 있다. 사실 고생은 에스더 양이
가장 많이 했다. 표정이 잘 잡히지 않는 드론 촬영 때도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연주에 임했다. “울고
싶을 때면 차라리 웃어버린다”는 에스더. 에스더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커서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열세 살 소녀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바이올린을 쫓는다.



가을 야구의 주인공은?

KBS N 해설위원 5인 밀착 인터뷰

4강 티켓과 와일드카드 한 장을 놓고 벌이는 10구단의 경쟁이 뜨겁다.

이용철, 안치용, 송진우, 조성환, 장성호 해설위원을 따로 만나 올가을 포스트시즌 전망에 대해 물었다.

우승을 향한 끝없는 질주

부동의 3강 두산, NC, 넥센

리그 최강 선발진으로 불펜의 약점 극복

이건은 없었다. 4명의 해설위원이 두산의 정규 시즌 우승을 예상했다.

이용철 10승 이상을 거둔 선발이 4명(니퍼트, 장원준, 보우덴, 유희관)이나 된다. 선발 하나가 무너져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팀이다. 볼티모어로 이적한 김현수의 공백도 안 보인다. 김재환, 박건우, 오재일 같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탄탄한 선발에 비해 불펜은 약점이 있다. 정재훈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마무리 이현승도 허벅지 근육통으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엔트리 확대로 이용찬(상무), 홍상삼(경찰)이 불펜에 합류하면 큰 보탬이 될 거다.

상대적으로 약한 선발, 힘 있는 중심 타선

NC는 '승부조작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다. 나성범, 테임즈, 박석민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은 힘이 있다. 선발인 재크 스투어트는 에이스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 NC의 정규 시즌 우승을 예상한 조성환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조성환 NC가 두산보다 8경기를 덜 치렀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두산이 자력으로 1위에 오르려면 NC와의 승차를 4게임 이상 벌리면서 시즌을 마쳐야 한다. NC의 약점은 단기전에서 니퍼트 같은 확실한 1선발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2위보다는 1위가 낫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경문 감독이 기회를 봐서 승부를 걸지 않을까 한다.

주변의 우려를 씻고 팀 리빌딩에 성공

박병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했고 유한준, 손승락이 FA가 되면서 팀을 떠났다. 넥센은 팀 리빌딩이란 숙제를 멋지게 해결했다. 성적 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 갔던 벤헤켄도 돌아왔다.

안치용 넥센은 고척 스카이드롬으로 구장이 바뀌면서 세밀한 야구를 하고 있다. 도루도 가장 많다. 감독이 생각하는 야구를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팀이다.

송진우 엄경엽 감독은 지력이 좋고, 젊은 선수를 길러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실수를 해도 믿고 만회할 기회를 준다.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믿음에 보답하는 플레이를 한다.

자고 나면 앞치락뒤치락

혼전의 중위권 SK, KIA, LG

접쟁이 문어를 데려와도 어렵다. 4강과 와일드카드 한 장을 놓고 그야말로 대혼전이다. "마지막 5경기를 두고 결정이 날 거다. 벤치나 선수들은 피를 말리겠지만, 팬들은 즐거울 것"이라던 안치용위원의 말이 떠오른다. 해설위원들은 4, 5위 예상 팀을 꼬아 달라는 말에 고심을 거듭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SK, KIA, LG 순으로 언급이 많았다. 3팀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다.

눈에 띄는 장타력, 안정적인 선발진

안치용 기본 전력이 탄탄하다. 마운드도 안정적이고, 팀 홈런 1위를 달릴 정도로 타격도 괜찮다. 타선보다 마운드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불펜은 KIA보다 SK가 확실하 낫다.

조성환 문학구장은 홈런이 많은 곳이다. 그 중심에 LG에서 온 정의윤과 최승준의 활약이 있다. 선발에 김광현, 켈리라는 원투펀치가 있고 윤희상, 박중훈, 라라도 나쁘지 않다. 또 마무리 박희수도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왔다.



살아난 타선, 젊은 선수들의 활약

이용철 선발에 양현종과 헥터라는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한기주, 김광수, 최영필 같은 중간계투진도 좋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강한울, 김호령, 박찬호 같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베테랑 투수인 임창용이 불펜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안치용(경찰), 김선빈(상무)의 9월 복귀는 호재로 보인다.



연승으로 상승세, 투타 균형 좋아

송진우 소사, 허프, 류제국 같은 좋은 선발이 있고, 타자들이 필요할 때 득점을 해준다. 공수에 박자가 잘 맞는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언제든지 흐름을 탈 수 있다.

장성호 투타의 균형이 좋다. 허프 선수가 합류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에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연패를 끊고 연승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임찬규의 5선발 합류도 도움이 됐다. 팀타율도 높다.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화, 롯데, 삼성, kt

이용철 한화는 타격으로 끌고 가는 팀이다. 이용규, 김태균, 로사리오가 주축을 이룬 타선은 정말 좋다. 송광민도 급성장했다. 다만 불펜의 소모와 피로 누적이 걱정이다.

송진우 형광등 위가 어둡다고, 올해 삼성이 이렇게 부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한화의 성적도 기대 이하다.

안치용 삼성은 외국인 선수 없이 뛰는 거나 마찬가지다. 3명의 구멍이 너무 크다. 롯데는 통 큰 야구, 시원시원한 야구가 매력인데, 그런 장점이 안 보인다. 세밀하고 타이탄한 경기에서 약점이 많다.

조성환 삼성은 워낙 잘 나가던 팀이라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넥센과 대비되는 점이다. 9월 엔트리 확대로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 여부, 2연전의 빠듯한 스케줄에 따른 체력 소모, 잔여 경기 일정 등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성호 삼성은 연승이 없을 뿐이지 8월 분위기만 놓고 보면 괜찮다. 승부처에 힘을 내는 능력이 있는 팀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남은 팀들을 두고 말이 많았다. 10위 kt를 빼고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끝까지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승부의 향배를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시즌이다. 9월의 승부가 더 기다려지는 이유다.



가을이
뭐라고,
야구가
뭐라고



KBS N 이기호, 강성철, 이호근 캐스터

“이걸 커피라고 내렸습니까?” 강성철 캐스터가 중계 톤으로 말한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호근 캐스터가 손사래로 받아친다. 말형인 이기호 캐스터가 책을 보다 웃는다. “가을은 야구 시즌”이라는 세 남자의 수다를 엮었다.

가을은
야구는 혼자
올라야 하는
에베레스트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 탄다? 다 옛말이다. 솔로들에게 외로움은 사계절 유행병에 가깝다. “우리는 시즌을 타죠. 야구 시즌, 배구 시즌, 농구 시즌... 야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죽기까지. 저는 가을에 야구 끝나면 겨울에 배구 중계를 해요. 강성철 선배는 농구 시즌이고.” 막내인 이호근 캐스터의 말이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세 아나운서를 카페로 불러냈다. 가을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는데, 결국 야구 이야기로 흐른다. 강성철 캐스터가 머그잔을 만지작거리다 너스레를 놓는다. “가을에 대한 기억이라... 작년 10월에 큰집이 있는 LA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죠. 산타 모니카 옆에 있는 베니스 비치란 곳을 혼자서 찾았는데, 너무 외로워서 부모님처럼 영상통화를 다 했더니깐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여행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따끔한 교훈을 얻었죠.”

야구 중계 연차를 보면 아나운서들의 경력이 딱 나온다. 그만큼 야구 중계는 어렵다. 남자 캐스터들에게엔 무산소 등정으로 올라야 하는 히말라야의 고봉인 셈이다. 말형인 이기호 캐스터는 야구 중계만 15년을 했다. 강성철 캐스터는 올해로 3년 차, 이호근 캐스터는 올해가 첫 시즌이다. “야구만큼 힘든 종목이 없어요. 경기 룰이 복잡하고, 챙겨야 할 데이터도 많고, 경기 흐름에도 변화가 많죠. 그래서 캐스터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네다섯 시즌을 치러야 감이 오죠. 경기의 흐름을 보는 여유가 생기려면 5년은 해야 해요. 그 정도 해야 제 색깔을 낼 수 있죠.” “쪽쪽 뻗어갑니다”, “때굴때굴 굴어갑니다” 같은 이기호 캐스터만의 멘트는 그렇게 생겨났다. 그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2003년 10월,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56호 홈런(한 시즌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을 치던 날 이용철 해설위원과 중계를 했다. 중계 팀으로는 KBS N이 유일했다. “저는 올해가 첫 시즌이라 패기 있게 한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경기 전에 5시간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오프닝 멘트 같은 게 떠오르면 핸드폰에 적어두기도 하고.” 이호근 캐스터의 말이다. 그러자 옆에서 강성철 캐스터가 한마디 한다. “호근이는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경기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오죠. 내가 3시간 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 캐스터란 게 혼자 다스리고 이겨내야 하는 고독한 직업이죠.”

가을은
프로야구가
끝나는 계절

야구가 뭐라고, 여름휴가 한 번 못 갔다. 한국시리즈 진출 팀이 가려지고 가을 야구가 피날레를 장식한 뒤에야 휴가를 떠난다. “시즌 중에 시간이 나면 지방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해설위원들과 맛집을 찾다니기도 해요. 사직구장 중계가 끝나면 해운대를 찾아 시원한 밤바다를 구경하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죠. 어느 팀이나 매 경기를 다 이길 순 없어요. 연승을 할 때도 있고 연패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중계에 담기는 것 같아요.” 이기호 캐스터에게 가을은 “프로야구가 끝나는 계절”이다. 시즌 중에 하루 휴가가 주어진다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야구 없는 곳에서 마음껏 가을을 느끼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아, 야구가 뭐라고. “그럴 땐 저처럼 미술관에 가세요. 가을의 운치도 느낄 수 있고, 조용해서 사색하기도 좋거든요. 가을 타는 여자 분들도 많이 오고요.(웃음)” 강성철 캐스터가 말한다. “숯불 준비했는데, 어서 나오시죠?” 창밖으로 보이는 글램핑장에서 이호근 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을’로 시작해 ‘야구’로 흐른 수다에 쉽표가 찍힌다. 매일 이어지는 중계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랜만이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딱 가을빛이다.



KBSN SPORTS

생생한 리우의 현장을 담다



KBS N Sports는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케이블 채널 최초로 39경기를 생중계했다. 리우 현지의 중계진은 물론, 12시간 시차를 두고 서울의 중계진도 밤새 바꿨다. 그 이야기를 담았다.



위 이종민 PD가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래 리우 현지에 설치된 KBS 부조정실

위 여자배구 8강 <브라질 vs 중국>전을 준비하는 이기호 캐스터(좌)와 박희상 해설위원(우)
아래 밤을 잊고 배구 경기 중계에 나선 서울의 스태프들



리우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한 장면

무더운 여름, 단비처럼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승부의 감동을 선사한 리우 올림픽. KBS N Sports 역시 리우데자네이루를 찾아 17일 동안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비치발리볼 5개 종목 39개 경기를 생중계했다. 스포츠 팬들에게 올림픽은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4년 만에 열린 스포츠 축제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KBS N Sports는 현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케이블 채널로서 올림픽 최대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남다른 각오로 중계에 임했다. 리우와 서울에서 각각 고군분투한 KBS N Sports 중계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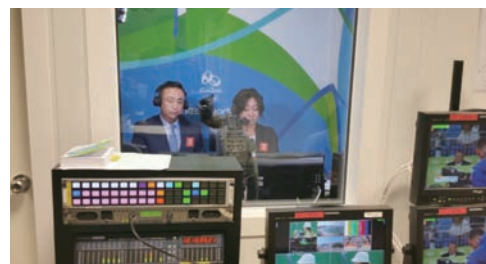


리우 KBS 가상스튜디오

예상치 못한 변수와의 싸움

2016 리우 올림픽은 KBS N Sports에 특별했다. 케이블 방송 최초로 올림픽 생중계를 시도하는 만큼 편성 조율부터 중계 회선 운영·관리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지카바이러스, 불안한 치안 등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완공률 50% 이하의 국제방송센터(IBC), 잦은 정전과 불안한 위성 상태는 예상 밖이었다. 현지를 찾은 이종민 PD의 말에 따르면 국제방송센터가 정전이 된 적도 있다. 당시 중계 중이던 KBS가 예비 전력을 갖춰놓은 덕에 방송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KBS N Sports 역시 많은 변수들 속에서 중계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현지에 파견되었던 이종민 PD는 “한국 선수들의 진출 여부에 따라 편성이 계속 변동되었다. 남자 농구 1경기, 비치발리볼 2경기를 빼고는 모두 계획한 대로 중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한국과 네



리우 KBS 중계부스

덜란드의 여자배구 8강전을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림픽 여자배구 예선전을 중계한 곳이 KBS N Sports다. 예선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터라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리우 올림픽 중계를 마친 소감을 묻자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의 방송 제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KBS N Sports가 KBS와 함께 올림픽 같은 국제경기를 함께 편성해서 중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시차를 잊은 한밤의 중계

같은 시각, 상암동 KBS N 사옥은 밤새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는 12시간. 현지에서 송출하는 신호를 받아 캐스터와 해설위원의 중계와 해설을 함께 내보내야 하는 중계진은 낮밤을 바꿔 살아야 했다. 카메라에 ‘온에어’ 불이 켜지기 전까지 중계진은 종목과 국가별 선수를 조사하고, 시청자들이 보기 쉽도록 데이터를 정리했다. 또 수시로 바뀌는 중계 일정에 대응하느라 커피로 잠을 쫓으며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 와중에도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스튜디오는 금세 환호로 가득 찼다. 캐스터의 목소리가 커지면 부조정실에서 중계를 맡은 중계진도 덩달아 탄성을 지르며 한밤의 승부를 즐겼다. 이런 에너지가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KBS N Sports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많은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첫 올림픽 생중계인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리우 올림픽 생중계를 발판으로, 글로벌 대표 스포츠 채널로 성장하는 KBS N Sports가 되길 기대해본다.



국제방송센터(IBC) 전경



리우 올림픽 경기장의 모습



해외 취재진의 모습



누구나 엄마는 처음이니까

<엄마는 고슴도치>
메인 MC 이영자

눈빛이 천상 엄마다. 아이들의 진심에 감동하고, 짝한 모습에 금세 눈가가 축축해지는 엄마. <엄마는 고슴도치>를 진행하는 이영자 이야기다. 시즌1을 끝내고 7월 21일부터 시즌2를 방송 중인 신개념 육아퀴즈 예능, 속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 시즌 1부터 안방 주인을 맡고 있는 이영자가 세상의 모든 '딸바보, 아들바보' 부모에게 묻는다. "당신은 아이들의 속마음을 모두 아시나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KBS 2rama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속터지는육아일기 시즌 2
엄마는 고슴도치

육아 프로그램 MC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나?

처음에는 당황했다. 상식적으로 육아 프로그램은 아이 엄마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내가 비록 산후조리가 필요한 몸이지만(웃음) 사실 경험한 적은 없지 않나. 하지만 직접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가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였다.

<엄마는 고슴도치>가 기존 육아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면?

기존 육아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보여줬다면, 우리 프로는 아이의 생각과 심리에 초점을 두고 좀더 깊이 알아가는 프로다. 관찰 카메라, 거짓말 탐지기, 생활 실험 같은 다양한 장치들로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부모들이 많다.

패널들을 곁에서 오래 지켜봐왔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은 누군가?

현영 씨다. 처음에 현영 씨는 '우리 아이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다은이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놀라는 모습을 많이 봤다. 엄마가 없을 때 다은이가 얼마나 허전해하는지, 마냥 아기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연예계에서 '조카바보'로 유명하다. 언니와 함께 조카들을 키우면서 '속 터지는'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형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보니 내가 언니와 함께 애들을 업고 다니며 키우다시피 했다. 우리 프로에 나오는 딸바보, 아들바보 패널들만큼 나도 속 터지는 일을 많이 겪었다. 조카들이 중2병을 앓을 때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늦은 밤 연락이 안 되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에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 그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 프로를 하면서 다시 했다.

여러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엄마는 고슴도치>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토크쇼를 진행하다보면 사람들의 고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듣고 조언하는 역할도 하고, 한 사람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엄마는 고슴도치>는 '바라보는 것'이 내 역할이다.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느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지 예상할 수 없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한 프로다.

양재진 원장이 '고슴도치 멘토'로 함께하고 있다. 호응은 어떤가?

양 원장님은 참 스마트한 분이다.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다. 양 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검증되지 않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방향성 없는 대화를 이어갈 때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이의 심리와 올바른 육아법을 조언하고 정리해주는 분이다.

<엄마는 고슴도치>를 아직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사람들은 '나도 부모는 처음이잖아요'라는 얘길 많이 한다. 하지만 이번 생은 연습이고 다음 생이 실현될 수는 없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는 부족하고 어디 육아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더더욱 <엄마는 고슴도치>를 봐야 한다. 요리를 배우려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듯 아이의 속마음이 알고 싶다면 <엄마는 고슴도치>를 꼭 보셔야 한다.

N match

KBSN SPORTS

이색 제구력 테스트 깡통을 맞혀라

'깡통 맞히기' 릴레이 미션이 벌어졌다. 송진우, 장성호 해설위원에 이어, <불야성>의 MC인 남희석이 불려나왔다. KBS N 공식 페이스북에서만 공개된 이색 제구력 테스트의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영상 바로가기

첫 번째 도전
송 회장님의 팔은
녹슬지 않아



송 회장님(송진우 해설위원)이 먼저 나섰다. '최다 승(210승), 최다 이닝(3003이닝), 최다 탈삼진(2048개) 1위'에 빛나는 레전드 투수가 와이드업에 들어간다. 아깝게 깡통을 빗나가는 공.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몸은 앞서가는데 팔이 안 따라오네." 그러나 두 번의 시도로 예전의 투구 감을 찾아 3차 시도 만에 성공! 역시 레전드 송 회장님.



두 번째 도전
스나이퍼의 팔은
치라고 있는 것



영상 바로가기



"내가 200승 투수를 어떻게 이겨요? 세 번은 힘들어. 그래도 열 번 안에는 맞추겠지." 이 말을 남기고 도전에 나선 장성호 해설위원. 아우~, 오아아~. 그 뒤로 알 수 없는 신음과 중얼거림이 길게 이어졌다는데... 결국 14차 시도 만에 성공! 현역 시절 2000안타를 쳤을 때처럼 기뻐하는 장성호 위원. '스나이퍼'란 별명은 타격할 때만 쓰세요!



영상 바로가기

세 번째 도전
남희석은 그냥
방송인으로 판명



한화의 골수팬이자 <불야성>의 MC인 남희석이 장성호 위원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장성호 위원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도전에 나선 남희석. 그는 자신이 독자 개발했다는 독수리 그림을 선보이는데... "해지기 전에는 끝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슬금슬금 깡통 앞으로 다가가더니, 20번의 시도 만에 성공! 남희석은 야구는 말고, 그냥 방송 활동 열심히 하는 걸로.

COMING SOON



돌아온 레전드 송진우 VS 장성호 투타 맞대결

"우리 송진우 형님과 장성호 위원의 멋진 투타 대결을 보고 싶다"는 남희석의 제안을 해설위원들이 받았다. 두 레전드가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맞대결을 <KBS N 페이스북>(www.facebook.com/happykbsn)과 <KBS N 매거진> 10월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On air



골라보는
재미 한가득
KBS N 추석 특집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KBS N의 6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중에 바빠서 놓친 최신 드라마, 예능부터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프로그램까지 골라볼 게 넘쳐난다. 가족, 친척들과 안방에서는 물론, 귀향길에는 모바일 무료 앱 MY K를 통해 볼 수 있다.

KBS Drama

<구르미 그린 달빛> 1~8회 연속 방송
◆ 9/18(일) 14:00

꿀 같은 연휴 마지막 날, 아직 힐링이 필요하다면 '자동안정장치'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을 몰아서 보자. 한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성의 배우 박보검과 남장을 해도 '예뻐'를 감출 수 없는 김유정이 철부지 왕세자와 남장내시로 분해 청춘로맨스를 선보인다.

KBS Joy

<차트를 달리는 소녀> 스페셜 방송
◆ 9/14(수) ~ 9/16(금) 13:00

명절 때 '아재개그' 할 건가요? 조카들과 세대 차이를 좁혀볼 생각 없나요? 90년대 청춘스타에서 이제는 아재가 되어버린 이상민, 대세아이돌 AOA의 초아가 21세기 아이돌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알맹이만 쑥 빼서 모아 봤으니 본방사수하세요!

KBS Kids

<포켓몬스터 극장판> 4편 방송
◆ 9/14(수) ~ 9/17(토) 17:30

귀경길 지루함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부터 포켓몬 잡으러 속초까지 달려갔다는 키덜트까지! <포켓몬스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작품 4편*을 엄선, 연휴 4일 동안 매일 1편씩 방송한다. 차 안이라면 my K 앱을 열어 포켓몬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자.

* <디아루가 vs 펠리아 vs 다크라이>, <신의 속도 계소 세트트 뮤츠의 각성>, <물의 도시와 수호신 라티아스와 라티오스>, <파괴의 포켓몬과 디안시>

KBS W

시청자들이 뽑은 프로그램 1위 <태양의 후예> 전편 연속 방송
◆ 9/16(금) 07:00

추석을 맞아 KBS W 채널에서는 시청자들이 직접 뽑고, 시청자들에게 사랑 받은 드라마를 연휴 내내 방송할 예정이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태양의 후예> 전편을 비롯하여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구르미 그린 달빛> 역시 방송된다.

KBSN Life

<불멸의 이순신>, <베스트 인간극장> 연속 방송
◆ 9/14(수) 16:00 <불멸의 이순신> 8편 연속
◆ 9/15(목) 12:20 <베스트 인간극장> 4편 연속

영웅 이순신의 삶을 다룬 명작 <불멸의 이순신>과 우리네 이웃들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 <베스트 인간극장>을 연속 방영한다. 특히 <베스트 인간극장>은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감안, 가족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했다.

KBSN Sports

KBO 프로야구 생중계 방송
◆ 9/14(수) ~ 9/18(일)

프로야구 정규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5강 티켓을 목전에 둔 박빙의 승부를 놓칠 수 없다. 특히 4, 5위를 놓고 중위권 다툼이 치열하다. 올 시즌의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추석 연휴 내내 펼쳐진다!



전 국민의 팬덤화를 위해 달리는 세대 소통 차트쇼

<차트를 달리는 소녀>

글 김선영 TV평론가

소녀와 아재의 만남. 부조화의 극치인데 꽤 잘 어울린다. 초아와 이상민, 두 MC의 세대 초월 만남이 차트만큼 흥미로운 신개념 랭킹쇼의 매력을 짚어준다.

차트쇼 장르에서 MC의 역할은 정보의 질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제에 따라 순위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인 이 미니멀한 쇼를 그나마 버라이어티하게 만드는 힘은 MC의 활약에서 나온다. Mnet <재용이의 순결한 19>를 비롯해 인기를 끈 차트쇼는 대개 MC의 독특한 개성이 쇼에 잘 녹아든 덕이 컸다. 특히 최근에는 MC들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지난해 Mnet <슈퍼 아이돌 차트쇼>는 아이돌 선배 러욱(슈퍼주니어)과 이성중(인피니트)의 브로맨

스를 내세웠고, tvN <프리한 19>는 전현무, 오상진, 한석준 아나테이너 3인방의 불꽃 튀는 경쟁으로 쇼의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는 <차트를 달리는 소녀>(이하 <차달소>)다. 접점이 없을 것만 같은 아재와 소녀의 조합이 의외의 '신선한 케미'를 발산한다. 인상적인 건 둘의 역할 구도다. 기존의 남녀 MC 구도에서는 연장자 남성이 메인, 어린 여성이 보조를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차달소>는 다르다. 두 MC의 비중은 동등하다. 굳이 따지면 이상민에게 아이돌 문화를 가르치는 초아(AOA 리드보컬)가 리드하는 쪽에 가깝다. 성별과 나이의 고정된 위계를 모두 뒤엎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새롭고 흥미롭다. 첫 회에서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는 열일곱 살 차이 나는 그냥 친구"라는 이상민의 말에 "그럼 야, 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받아치는 초아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돋보였다.

세대 소통 차트쇼의 매력

소녀와 아재의 조합은 <차달소>가 제공하는 차트 정보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현직 아이돌인

초아가 차트에 담긴 트렌디한 이슈를 잘 살려낸다면, '20세기 톱스타' 이상민이 중간중간 만담처럼 풀어놓는 일화는 가요계가 그동안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교 자료가 된다. 가령 '20세기 부자돌'이나 '20세기식 애정 표현'처럼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하는 이상민의 이야기는, 초아가 알려주는 '요즘 팬 문화' 못지않게 이 쇼에 세대 소통의 성격을 강하게 불어넣는다. 그런 면에서 '20세기 아재통신' 코너처럼 이상민이 증언하는 일화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이템 선정에서 보완할 점도 보인다. 요즘처럼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색다른 시선으로 정보를 맛깔나게 가공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컨대 '금수저' 아이돌, 아이돌 인맥처럼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정보보다는, 아이돌 커플의 관심을 토대로 공감을 점쳐본 4회가 더 흥미로웠다. 기존 정보에 <차달소>만의 개성적인 분석 장치가 더해질 때 정보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 트렌드와 세대 소통이라는 두 마리를 모두 잡으려면 좀더 달리는 힘이 필요하다.

01 I.O.I의 정식 데뷔곡은?

PICK ME

Dream Girls

02 떠오르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

없다

03 A.O.A는 무엇의 약자?

Ace Of Angels

Apple Of Adam

10 그룹 세븐틴의 멤버 수는?

13명

17명

N test

<차트를 달리는 소녀>와 함께하는 아재력 테스트

이거 모르면 당신도 아재!

<차트를 달리는 소녀>의 이상민이 즐겨 한다는 바로 그 아재력 테스트. 당신도 도전해보시라.

04 사진 속 멤버의 이름은?

랩마스터

랩몬스터

09 사진 속 그룹의 이름은?

여자친구

여자사라 친구

07 사진 속 EXO 멤버는 중국인이다?

맞다

아니다

05 VIXX의 독특한 메이크업 별명은?

간장 메이크업

춘장 메이크업

08 다음 중 갓세븐 멤버의 이름은?

붐붐

뽀뽀

06 트와이스 <Cheer up>의 인기 가사는?

샤샤샤

쇼쇼쇼

당신은 오빠? 아님 아재? 정답은 22p. Notice 코너에 나와 있습니다. 재접 후 당신의 아재력을 알아보세요.

0~3개	4~6개	7~9개	10개
어이쿠, 당신은 부장님! <차트를 달리는 소녀> 챙겨보고 '아재 탈출'하세요.	오호, 은근히 잘 맞는 당신! 화장실에서 연예뉴스 좀 보셨군요.	참 잘 했어요! 이 정도면 초딩이랑 친구 기능해요.	알아도 너무 잘 아는 당신. 영원히 아재가 될 수 없는, 당신은 영원한 오빠.



한눈에 쏙 들어오는 바둑판 홈피로 변신

KBS N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디자인은 단순해졌고, 접근성은 좋아졌다. 바로 재생, 확대 모션도 적용했다.

외형만 고친 게 아니다. 사용자 환경을 싹 바꿨다.

지난 8월 24일 KBS N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 새롭게 바뀌었다. KBS N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둑판 형식의 UI(user interface)를 적용했다. 프로그램 정보, VOD, 이벤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신 콘텐츠를 단순한 직사각 형태로 나열하여 한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이미지 위주의 화면 구성으로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또 하단에 고정된 띠 배너 형태의 실시간 편성정보, 채널별 이동이 가능한

퀵 메뉴를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메인화면에서 즉시 재생되는 영상 콘텐츠, 확대 모션이 적용된 상단 배너, 사용자 움직임에 반응하는 이미지 콘텐츠 같은 동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페이지를 구현했다.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한 홍보팀의 이용주 팀장은 "작년에 리뉴얼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두고 오래 고민해왔다"며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물론, 모바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온라인 홍보 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코리안 메시’ 이승우, ‘축구 신동’ 백승호를 안방에서

KBS N Sports 스페인축구 세군다B 리그 중계

한국 축구의 미래, 이승우와 백승호의 경기를 단독 중계한다.

KBS N Sports에서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이승우(좌)와 백승호(우)의 출전이 예상되는 2016-17시즌 스페인 세군다B(3부 리그)를 단독으로 녹화 중계한다. KBS N Sports는 지난 8월 21일(일) <바르셀로나B vs 아틀레티코 사군티노> 세군다B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이승우와 백승호의 출전 경기를 중계할 계획이다. 세군다B 리그는 명문 구단들이 최상급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창단한 80개 팀들이 4개 그룹으로 나뉘져 있으며, 그룹별 토너먼트를 통해 승격과 강등이 결정된다. ‘축구 신동’ 백승호는 현재 바르셀로나B 소속이며, ‘코리안 메시’라 불리는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후베닐A 소속이나 2015-16시즌 후반기부터 B팀도 오가고 있다. 두 선수의 활약과 성장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KBS N Sports는 스페인 현지에서 중계차를 투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2016-17시즌 세군다B는 내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3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출처: FC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

야구 시청률 3.7%,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KBS N Sports, KBO리그 시즌 최고시청률 기록

한화와 KIA의 아슬아슬한 1점 차 승부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KBS N Sports가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시청률을 갱신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화) KBS N Sports에서 중계한 <한화 vs KIA> 경기의 시청률이 3.713%(전국 기준)로 시즌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6월 3일(금)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중계한 <한화 vs 삼성> 경기의 시청률(2.671%, TNMS 전국 기준)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날 경기는 9회 말까지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가 아슬아슬한 1점 차 승부를 이어가며 진땀 승부를 벌였다. 중계석에서는 안치용, 장성호 해설위원과 강성철 캐스터가 호흡을 맞춰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KBS N Sports는 스포츠 케이블 시청률 1위는 물론, 동시간대 PP채널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다.



Notice

히트다 치킨!
KBS N magazine
독자 소감 이벤트

매거진을 보고 느낀 솔직한 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감을 보내신 분들 중 5명을 선정, 옛날 맛 그대로 '또봉이 통닭' 상품권(1인당 2매)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대상 <KBS N 매거진>(4월호~9월호)을 본 분이든 누구나
응모 방법 KBS N 홍보팀 이메일(pr@kbsn.co.kr)로 접수
응모 내용 매거진에 대한 평, 칼럼에 대한 이야기, KBS N에 바라는 점 등을 솔직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필수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선정되신 분은 개별 연락을 드리며, 10월호 지면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의견도 함께 게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 pick

촬영 중 장난 금지!

아뿔싸. 방심하다 당했다. 강성철 캐스터가 빈틈을 노려 찌르고 들어온다. 표지 촬영 중 이게 무슨 굴욕이란 말인가. 평소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촌데레' 선배지만, 그럴 땐 정말 괴롭다. 훗날 기회를 봐서 두 배로 갚아줘야지.



<차달소>와 함께하는 아재력 테스트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② 5. ② 6. ① 7. ② 8. ② 9. ① 10. ①

진짜 궁금했던 아이돌에 관한 모든 것!

순정 자극 아이돌 랭크
차트를 달리는 소녀

소녀 초아, 아재 상민이 알려줄게~

KBS iY 방송